



봄 기운 완연한 무등산 정상 개방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해 올해 첫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린 4일 서석대를 거처온 탐방객들이 정상에 도착해 정상부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해외 상설 판매장 확대로 전남 해외 신규 시장 개척

전남도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식품 수출협회, 해외 상설 판매장 운영사 및 시군 수출담당부서 등과 함께 해외 상설 판매장 확대를 통한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세계 경제의 급격한 침체 속에서 지난 1월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7% 감소한 3964만 7000달러에 그쳤다. 이는 배, 파프리카, 고추 등 신선 농산물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비관세장벽, 라-우 전쟁 등 영향으로 김 등 수산물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을 위한 수출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2일 (재)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남 3개 식품수출협회인 전남식품수출협회, (사)남도농수산물수출협회, (사)전남농수산물수출협회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상설 판매장 운영 8개 사, 22개 시군 수출 담당부서와 함께 수출 기업의 역량 강화 및 도내 농수특산품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제품 발굴, 해외 상설 판매장 확대 개설 등을 협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도심에 활력

2025년까지 5881억원 투입 사업지 18곳...충장·농성동 마무리 주택 정비·커뮤니티 등 거점시설 구축...환경 개선·방문객 증가

침체한 광주도심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18개 지역이 선정된 이후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481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881억원을 투입해 도시공간을 새롭게 창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구 충장동, 서구 농성동 사업은 완료됐으며 올해 안에 8개 지역 사업이 추가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미 사업이 끝난 동구 충장동, 서구 농성동 등은 도심활력 회복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인 동구 충장동은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미로센터, 충장22 등 거점시설을 구축했는데, 벌써 16만여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업비 77억원이 투입된 서구 농성동 우리동네 살리기사업은 상상만개 커뮤니티센터, 벚꽃이야기길 등을 조성하고, 노후주택 112호를 정비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회복의 발판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16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 지역자산 활용, 주민 참여 확대, 지역별 관계사업 통합·연계 등을 사업방향으로 정하고, 도시쇠퇴에 대응한 물리

적 환경개선과 주민의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일단 올해는 양동, 송정2동, 동명1동, 농성1동, 사직동, 임동, 산수동, 방림2동 등 8개 지역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마무리된다. 동구 동명1동 재생사업은 234억원을 들여 밀집된 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해 노후주거 환경정비, 주민주도 공동체회복, 청년유입 활성화 사업 등을 한다. 옛 읍성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동백어울림센터, 동명공간, 주택정비사업 및 다양한 소토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구 사직동 더 천년 사직 리뉴얼 선비골 사업은 221억원을 들여 쇠락한 사직공원 일대 거주지역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밖에 전남대-북구청, 양림동 등 8개 지역은 2024-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 전남대 주변 대학타운형 사업은 2024년까

지 452억원을 들여 청년창업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시설인 행복어울림센터, 삼지공원, 삼지공원장 등 청년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문화거리를 조성한다. 다만 일부에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방문객 증가, 생활환경 개선 등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투입 예산 대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시적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사업 효과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완하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온다. 김준영 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주민 참여에 달려 있는 만큼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문화유산 복원 총력 보수정비사업 전국 최다

전남도가 2023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국비 528억원을 확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23년 사업비로 지난해 9월 보수정비사업 219건에 대해 국비 469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 1월 52건 5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2022년 대비 169억원이 증액됐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자산인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및 복원, 훼손 방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7 원이다. 전남도는 올해 보수정비,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방충·방염, 초가 이영 잇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주요 보수정비 사업은 여수 진남관 해체보수 28억원, 장흥 천관사 선원 재현 24억원, 해남 미황사 대웅전 보수 18억원, 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 지소 보수 18억원 등 259건에 739억여원을 투입한다. 또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사업은 고흥 금당사 비자나무숲 1억원,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1억원 등 42건 정비에 8억여원을 들여 문화유산 보호에 나선다. 방충·방염 사업은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 17건 7억여원을, 초가 이영 잇기에는 순천 낙안읍성 등 25건 21억여원을 각각 투입한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외에도 전남도는 자체사업으로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재해 긴급보수,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확충사업 등 문화재 원형 보존과 보수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기정 시장 '지방 상수도 현대화' 국비 지원 건의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가뭄·수돗물 대책 논의...한 장관 "적극 검토"

강기정 광주시장이 기후 위기에 따른 가뭄 중장기 대책과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상수도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강 시장은 지난 3일 한화진 환경부장관,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과 함께 광주시 동구 용연정수장을 방문해 상수도 생산 현황과 광주시 물 수요 관리,

누수량 저감 대책 등 가뭄 극복 대책을 점검하고, 용연정수장 시설을 둘러봤다. 앞서 강 시장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차담회를 갖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관 정비와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

관망 정비, 긴급누수탐사, 블록시스템 구축 등으로, 특·광역시를 제외한 누수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해당 사업이 노후상수관로 비율이 높은 특·광역시까지 확대된다면, 누수로 낭비되는 많은 양의 수돗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한 장관에게 상수도 노후화 등으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시설 정비와 긴급누수탐사·복구를 위한 긴급사업비 50억원의 국비 지

원도 요청했다. 또 황룡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다양성을 보전하고 시민 생태교육·공간화하기 위한 ▲황룡강 장류습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정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실효성 제고 및 조기 착공 등을 건의했다. 한 장관은 "광주시의 건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적극 협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시는 식수원 부족 문제 해결 대책으로 영산강 하천수 비상공급 사업을 추진, 지난 2월부터 영산강 하천수를 하루 3만㎥를 취수해 용연정수장을 거쳐 공급하고 있다. 또 오는 5월 임시가압 시설이 완료되면 하루 5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TS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자동차·부품 인증센터 및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인프라 장비 활용

2023 친환경자동차·부품 시험·인증·평가 기업지원 사업 공고

광주지역 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고자 "2023 친환경자동차·부품 시험·인증·평가 기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0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사업안내

- **사업명** 2023 친환경자동차·부품 시험·인증·평가 기업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 **지원대상**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기업 제외
- 광주광역시에 자동차 관련 본사/연구소/공장이 있는 기업
- '제작자등 등록증' 주소가 광주인 기업
- **지원내용**
- 비용 : 시험비용 최대 40% 지원, 최대 1,760만원 한도(부가세 포함)
* 인정시험비용 4,400만원(부가세 포함) 한도, 초과 시험비용 기업 부담
- 지원시험종류
·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시험(별첨 2. 시험 항목 소개 참고)
· 인프라 장비 활용 시험(연구개발용역 시험 등)
- **지원장소**
-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광주)
-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본원 및 김제 특장차인증센터)

신청·선정안내

- **공고 게시** 2023년 3월 1일(수) www.katri.or.kr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
-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수) ~ 2023년 11월 30일(목)
- **신청방식** 매일 신청서 접수, 신청 익일 20일 선정 알림(±2일)
- 접수 : ✉ yeongji22@kotsa.or.kr 이메일로 필수서류(PDF) 송부

| 구분 | 내용 | 비고 |
|-------|---------------------------------------|-------------------------|
| 필수 서류 | 기업지원사업 신청서류_2023* (신청서/사업기술서·계획서/동의서) | - 날인 필수 - 공고문 내 붙임파일 |
| | 견적서 | 시험부서 사전 협의 |
| 요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대체 |
| | 기타 담당자 요구 서류 일체 | |

- * 이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시험 서류 또는 선정시험이 다를 시 선정 익일부터 재신청 가능

문의처안내

- 세부 사항은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 (www.katri.or.kr) 내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유선문의 :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대표번호 ☎ 062)970-3369
- 변경사항 발생 시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www.katri.or.kr)

TS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광역시